

‘위안부’ 표현 초등 교과서에서 삭제... 역사적 사실 축소 논란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
벌써 잊고 싶은 건 아닐까요
초등 교과서에서 사라진 ‘군 위안부’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서
사건 관련 인물과 장소를
삭제하고 ‘위안부’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과거 ‘위안부’라는 표현이
역사를 인식하는 데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다



올해부터 적용될 초등 6학년 사회 교과서에
‘군 위안부’ 관련 표현이 삭제돼
역사적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강제로 징병되어 끌려간 젊은 여성들은
일본군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였다.”



어떤 단어도 그곳에서 만들어졌다.
‘위안부’가 대표적인 예로.

그러나 이미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모호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난 18일(수요일) 대구시청
아트 마법 홀로코스트 추모관에서는
한국과 일본 간의 ‘사죄’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골칫발은 역사 교육과 관련 기록을 수집,
과거사 용언이 없었던
독일도 자신의 역사적 잘못을
이스라엘에 함께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연일 위안부 할머니에서
영국인 ‘최종적인 위안부 협의를
아름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비주얼다이브(http://www.visualdivo.com/)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법률홍익닥터 사업 안내

법률홍익닥터제도는 변호사의 자질을 갖춘 법조인이 중복지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꽃’이라는 시민 법률홍익센터 제도를입니다.

지원내용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과
법교육, 구호신청과
법률봉사활동 등 소송 수임
없이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대상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저소득층, 사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 받을수 있는 분야

근로계약 및 임금, 채권 및
채무, 상속 및 유언, 이혼,
친권 - 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관련입니다.

법률서비스제공

민들레 변호사 (법무부
민권구조자)가 담당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시 간: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연 락: 043)236-0843 / 이메일: dsbin@citizen.seoul.kr
사무실: 청주시 흥덕구 강천로 67 중복지회복지협의회센터 300호 법률홍익센터

법무부 · 충청북도 ·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